



## 미 증시, 소매판매 서프라이즈, 금리 상승 등으로 약세

### 미국 증시 리뷰

17 일(수) 미국 증시는 견조한 미국 12 월 소매판매로 인한 금리인하 기대 되돌림 지속, 미국채 10 년물 금리 상승, 중국 경기 부진 및 아시아 증시 약세 등이 하방압력을 가하며 약세 (다우 -0.25%, S&P500 -0.56%, 나스닥 -0.59%)

미국 12 월 소매판매 MOM 0.6%(예상 0.4%, 전월 0.3%), 자동차 제외 근원 소매판매 MOM 0.4%(예상 0.2%, 전월 0.2%) 기록하며 예상치 상회. 견조한 연말 소비에 힘입어 백화점(3.0%), 자동차(1.1%), 무점포소매(1.5%), 의류(1.5%) 등을 중심으로 증가. 가구(-1.0%), 전자제품(-0.3%), 헬스케어(-1.4%), 주유소(-1.3%)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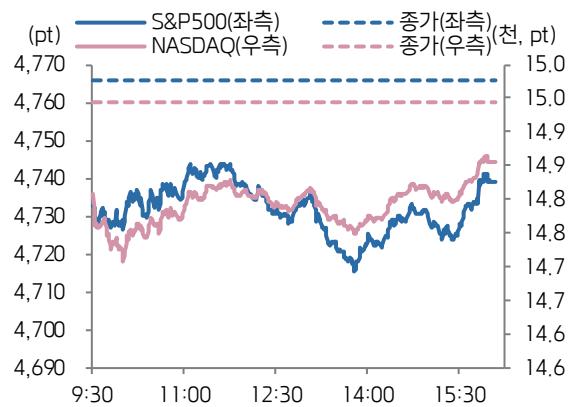
12 월 CPI 가 0.3%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판매금액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소비가 증가했음을 시사. GDP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통제그룹(식품 서비스업, 자동차 판매점, 건축자재 상점, 주유소는 제외) 매출은 0.8% 증가, 7 월 이후 최고치 기록. 12 월 수입물가지수 역시 MOM 0.0%(예상 -0.5%, 전월 -0.5%)로 예상치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 강화.

연준은 1 월 베이지북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구직 대기자 증가, 이직률 감소, 기업의 선별적 채용 확대, 임금상승 압력 완화 등 노동시장의 냉각을 시사하는 신호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1 개 또는 복수로 나타났다”고 언급. 또한 미국 전역에서 제조업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여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고 언급. 또한 최근 홍해의 지정학적 위협이 유럽의 공급망 혼란과 소비자물가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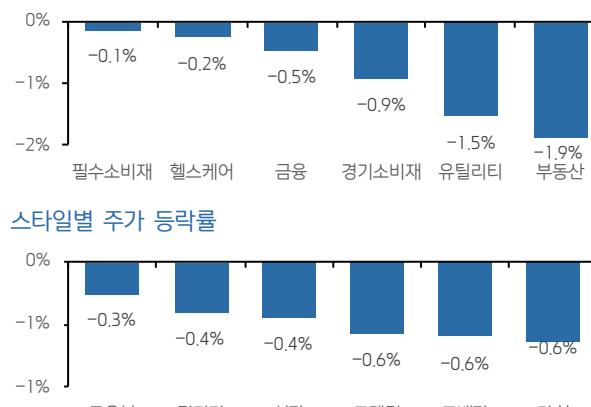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필수소비재(-0.1%), 헬스케어(-0.2%), 금융(-0.5%)의 낙폭이 가장 커았고, 부동산(-1.9%), 유틸리티(-1.5%), 경기소비재(-0.9%)의 낙폭이 가장 컸음. 애플(-0.52%), 알파벳(-0.72%), 아마존(-0.95%) 등 주요 빅테크 하락. 테슬라(-1.98%)는 중국내 차량 가격 인하에 이어 독일내 모델 Y 판매가격을 8% 인하한다는 보도에 수요부진 우려 부각. 프랑스에서는 최대 6.7%, 네덜란드에서는 최대 7.7%, 노르웨이에서는 5.6%~7.1% 인하 단행.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35.90	-2.47%	USD/KRW	1,344.61	+0.97%
코스피 200	326.11	-2.58%	달러 지수	103.38	+0.02%
코스닥	833.05	-2.55%	EUR/USD	1.09	-0.01%
코스닥 150	1,307.10	-2.39%	USD/CNH	7.22	+0.03%
S&P500	4,739.21	-0.56%	USD/JPY	148.10	-0.04%
NASDAQ	14,855.62	-0.59%	채권시장		
다우	37,266.67	-0.25%	국고채 3년	3.270	+3.9bp
VIX	14.79	+6.86%	국고채 10년	3.360	+4.5bp
러셀 2000	1,913.17	-0.73%	미국 국채 2년	4.361	+14.1bp
필라. 반도체	4,069.95	-0.88%	미국 국채 10년	4.102	+4.4bp
다우 운송	15,232.04	-0.72%	미국 국채 30년	4.312	+1.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403.08	-0.98%	WTI	72.56	+0.22%
MSCI 전세계 지수	718.96	-0.7%	브렌트유	78.09	-0.26%
MSCI DM 지수	3,146.04	-0.6%	금	2006.5	-1.17%
MSCI EM 지수	979.72	-1.55%	은	22.67	-1.84%
MSCI 한국 ETF	57.46	-2.59%	구리	373.3	-0.8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5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4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42.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 미국 소비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상승이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 전일 패닉셀링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
- 장중 원달러 환율 변화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의 12 월 소매판매(0.6%MoM, 컨센 0.3%), 산업생산(0.1%MoM, 컨센 0.0%) 호조로 10 년물 금리가 4.1%대까지 상승하는 등 증시에서 이번 실물지표가 “Bad news is Good news”에 가까운 재료로 인식된 모습. 1) 연말 미국 증시 랠리 이후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2) 연내 6 회 금리인하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시기 적절한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일례로 CNN 의 Fear & Greed Index 는 전일 70pt 에서 58pt 로 급락했으며, CME Fed Watch 상 연초 80%대까지 육박했던 3 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연초 현재는 55%대로 하락한 상황

연준 정책 전환을 둘러싼 기대감 조정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증시 냉각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진행 가능성은 낮음. 12 월 소비와 생산이 잘 나왔던 것과는 달리, 고용 포함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 연준 베이지북에서 거의 모든 지역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등장했다고 언급한 점이나,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지수도 1.4pt 대로 지난해 5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따라서, 연준 정책 경로를 본격 재설정할 수 있는 시점인 1 월 FOMC까지 증시는 현 레벨에서 크게 밀리지도, 11~12 월과 같은 랠리도 일어나지도 않은 채 방향성 탐색 구간에 돌입할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홍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환율 급등세 지속, 연준이사의 매파 발언, 중화권 증시 급락 등으로 인해 패닉셀링 장세가 출현하면서 급락 마감(코스피 -2.5%, 코스닥 -2.6%).

금일에도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및 시장 금리 상승 등 매크로상 부담 요소가 상존하겠지만, 전일 미국 증시 낙폭 축소, 원/달러 환율 연속 급등세 진정, 벤류에이션 매력 등으로 최근 급락 주가 분을 되돌릴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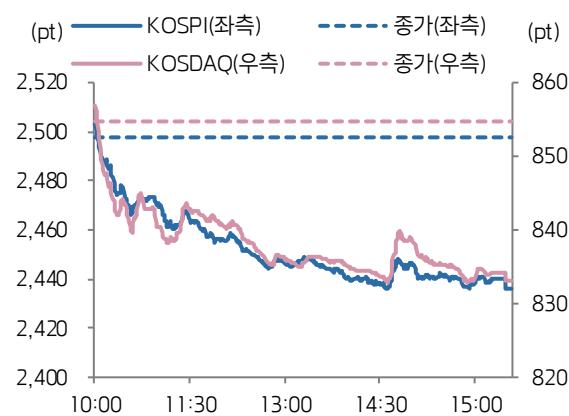
지금 코스피는 연초 고점(1 월 2 일 2,675.8pt) 대비 8.9% 하락, 코스닥은 연초 고점(1 월 9 일 890.1pt) 대비 6.4% 하락한 상황. 통상적으로 고점대비 10% 이상 하락을 조정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은 약세장), 아직은 추세 붕괴 우려를 키우는 조정장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음.

하지만 코스피는 지난 1 월 3 일부터 줄곧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채 단기간에 2,500 선을 하회했다는 점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조정장에 진입한 것 같은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실정.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지난해 연말부터 순매수세를 이어왔던 외국인이 최근 2 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 급등(2거래일간 원/달러 환율 24원 상승)으로 인해 약 1조원 순매도에 나섰다는 점도 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 또 중화권 증시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등 여타 증시 대비 조정 강도가 유독 거셌다는 점이 국내 투자자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어제와 같은 패닉셀링 장세를 유발했던 것으로 판단.

결국, 작금의 패닝 셀링 분위기를 환기 시키려면, 조정 원인을 제공하는 1) 연말 랠리의 과도 인식, 2) 4 분기 어닝쇼크, 3)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 4) 연준 정책 불확실성 등 이 4 가지가 해소되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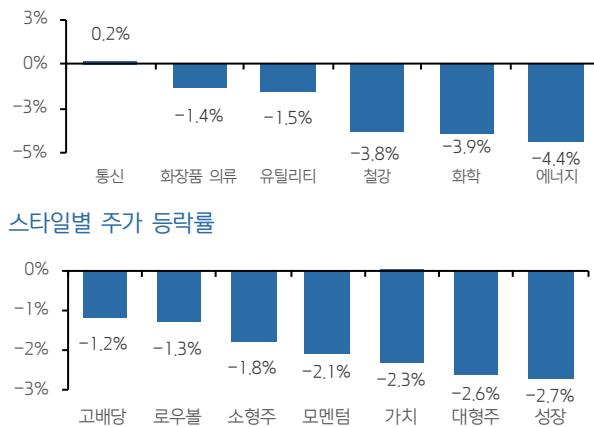
이중 연말 랠리 부담은 해소됐으며, 실적시즌 불안감도 벤류에이션 조정을 통해 소화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급등, 연준 정책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관건이 될 것. 직관적으로는 1 월말까지 주가 모멘텀 회복이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있겠으나, 재료 선반영 경향, 패닉 셀링 이후에 자주 출현하는 저가 매수세 유입 등과 같은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시점부터는 매도 행렬에 동참하는 것은 증시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서 후순위에 놓는 것이 적절.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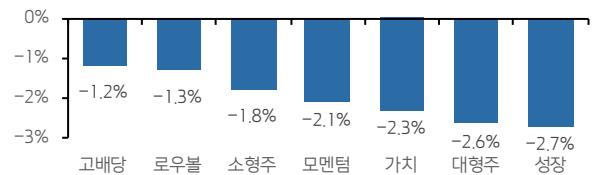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